

분류	산업선교
제목	공동체와 산업선교(253)-OMC시대를 위한 응답 (20)- 중직자와 전도기획
성경	사도행전 11:19
일시	2009년 6월 27일
장소	서울 산업 선교센터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녹취 자료 ♣

서론

▶행11:19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 때에 그랬다. 그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다. 그 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저는 확신한다. 환난 때문에 모였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이다. 그런데 저게 세계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대박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대박이 터졌다는 얘기를 한다.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최고의 대박이라고 본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셔야 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30년 전도하면서 그 이전 것을 한번 생각해봤다. 그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봤다.
30년을 전도하면서 저는 두 가지 큰 것을 마음에 품은 게 있다. 그게 램넛트와 중직자이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30년 전도하면서 봤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램넛트 운동을 지금 활발하게 축복하고 계신다. 그런 가운데 지금 큰 축복이 중직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부분의 큰 흐름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 산업선교가 중직자 대학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응답이 누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안 잡고에 따라서 영적인 것은 달라진다. 이렇게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될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중직자가 직접 전도기획을 하라는 말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중직자 분들이 중직자 생활하는 그게 어려운 것이다. 이거 안 하면 뭐 하는가? 이거 하지 않으면 중직자가 모여서 뭐 하느냐 말이다. 그러면 말하자면 늘 부정적인 것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 한번도 큰 축복을 볼 기회가 없다. 중직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늘 애로사항들만 본다. 또 돈이 모자라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늘 걱정만 한다.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봐야 될 것이 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봐야 된다. 이게 중직자 전도기획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단어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흥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유만 알아도 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왔을 때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윗의 형들은 싸우면서든 이유를 몰랐다. 다윗은 심부름 왔는데도 이유를 알았다. 이걸 굉장한 차이가 난다. 여러분이 실제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이유를 깨달은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유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1)축복
▶근본적인 이유부터 먼저 봐야 되겠다. 많은 중직자가 일, 경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 당연히 축복 받아야 될 중직자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한국교회가 100년 되는 동안에 그 어떤 교회에서도 중직자에게 전도기획 할 축복을 전달 못 했다. 저는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너무나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직자가 되면 무조건 축복을 못 받고 자꾸 시험 든다. 이게 말이 되는가? 중직자가 되면, 중직자 몇 년 하고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자꾸 시험 든다. 저는 부교역자 시절 때도 당회에 가서 장로님들 모습을 보면서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당회원들이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전도기획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축복받을 일을 하면 축복 받게 되어있다. 장로님들 산업을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님이 지키신다.
(2)기초(방향)
▶또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할 걸 해야 된다. 왜 그런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많은 신자가 복음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다보니까 신자가 방향을 하고 있으니 많은 불신자가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까 중직자 분들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3)현장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 목회자다. 중직자는 현장에 있는 설교자이다. 중직자는 현장에 있는 증인이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책임진다면 현장에서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설 사당들은 중직자 분들이다. 그래서 당연히 축복 받아야 될 모델이다.
▶저는 뭐 합동, 고신, 통합 다 했다. 어릴 때 제가 다닌 교회가 통합이었다. 제가 주로 공부한 데는 고신이다. 제가 주로

◆성경말씀 (사도행전 11:19)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 요약 자료 ♣

◆서론 - 중직자 시대를 연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1. 많은 중직자가 일, 경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초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3.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요, 현장의 설교자요, 현장의 증인이요, 그리고 모델입니다.

◆본론 - 전도기획부터 전 중직자는 시작해야 합니다.

1. 하나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 (1)고후7:10
- (2)행1:12-14 회복
- (3)롬16:1-27 회복

2. 내부 제자 발견부터 해야 합니다.

- (1)참 중직자(행7:54-60, 8:4-8, 8:26-40)를 만나는 일입니다.
- (2)참 제자 평신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 ①행10:25
 - ②행16:14-15
 - ③행17:3-4
- (3)램넛트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3. 지교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론

1. 두 종류 사람
2. 두 종류 신자
3. 두 종류의 중직자

(The end)

사역한 데는 합동이다. 제가 다 잘 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것이 잘 못하고 우리가 잘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본론 - 시작

그러면 전도기획부터 해야 되는데 전 중직자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다.

1.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크게 하던 작게 하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걸 해야 된다.

(1)고후7:10

▶고민도 두 종류가 있다. 고후7:10에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근심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 우리의 세상근심은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영생에 이끈다고 되어있다. 중직자 분들이 모여서 전도기획을 시작했다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 그렇게 많은 중직자를 세워야 되느냐? 현장은 텅텅 비어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중직자를 세우느냐? 곳곳에 불을 밝혀야 된다. 왜냐? 언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갈지 모른다.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중직자가 없단 말이다. 많은 전도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는데 중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했는데 야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근원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된다.

(2)행1:12-14

▶당연히 행1:12-14을 회복하는 것이다.

(3)롬16:1-27

▶당연히 여러분 롬16장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중직자 분들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2.내부 제자부터 발견하라- 만남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다. 내부제자만 발견을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이 잘 중직자를 만나고 참 제자를 만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만남들이 일어났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대안 중학교를 시작한다. 여러분도 학교 다녀보셨을 것이다. 제가 보기로는 약간 좀 모자란 아이나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학교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일부러 지금 시도를 해본다. 진짜로 엘리트를 키우는 작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 안 나가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학과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엘리트 정신을 키울 수 있다. 이 세 개가 열쇠이다. 그래서 영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학과목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 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해야 엘리트가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시도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많이 모집하지 않고 조금만 아주 머리 있는 아이들만 모집해서 우리가 지금 대안 중학교를 해보려고 한다. 아마 오늘 뉴스에 나올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다.

▶미국에서만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150만 명이다. 그렇게 해서 엄청 뛰어난 결과를 낳았다. 왜 안 보냈느냐 했더니 마약 배울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지금 시도되고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키가 뭐냐? 제대로 된 제자를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분들이 눈을 바짝 뜨시고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제자가 있으면 그것부터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영진이 잘 해야 된다. 대안학교도 간단하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아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진짜 영어 잘 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아이들 보다 학과 빨리 가게 만들어주고 졸업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한번 제자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듯이 중직자들이 가장 눈을 떠야 될 게 교회 안에 진짜 제자들이 있다.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데는 찾으면 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얘기다. 어떻게 소년이가 영어를 이렇게 잘 하는가? 간단하다. 영어 잘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다. 우리 다락방 안에 영어 잘 하는 리더들 많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바꾸는 굉장한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앞으로 언어 캠프라든지 이런 걸 다 놓고 지금 시도를 해보는 것이다. 왜냐? 영어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 유학가면 우리 한국 학교는 문 닫아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주 시대적인 것을 놓고 도전하는 것이다.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장로님들이 눈을 들어서 교회 안에서 자제히 쳐다보면 램턴트 가운데 공부 잘 하고 메시지 잠으면서 전도 잘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딱 보면 아줌마들 가운데 시끄럽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두세 명만 만나서 묶어버리면 대 역사가 시작

된다. 아주 간단한 얘기이다. 보니까 예원교회 집사님 한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누구 사위입니다 그러더라. 목사님께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25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의 권사님 사위였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권사님 살아 계시느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게 뭐가 하나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여자분 두 사람을 딱 잡았다. 교회 전체를 보니까 전도할 만한 사람이 딱 둘이 있더라. 그 중에 한분이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내가 모시고 안에서 전도운동을 편 것이다. 그런데 한때 교회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간단하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 생애에 그런 전도역사 일어난 경험은 별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 장로님들 한번 해보시라.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은 가만 앉아서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램턴트 가운데 딱 제대로 된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을 잡고 키우면 금방 역사가 일어난다.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부분을 잘 했다는 말이다.

3.지교회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전혀 어렵지 않다. 지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신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1)자리

▶그 자리게 계시기만 하면 된다. 행2:9-11에 15나라의 중요한 제자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 눈만 떠버리면 된다. 엄청난 권세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는가? 전혀 어렵지 않다.

(2)상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만 계속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체험해보라. 해보라니까. 집사 때는 상담하는데 그냥 그랬지만 여러분이 장로가 되어서 상담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다.

(3)숨겨진 제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반드시 지역마다 숨겨진 제자가 있다. 이걸 못 본다는 게 소경이다. 이걸 본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사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이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면서 다른 것을 걱정한다. 정말로 이 체험을 해야 된다. 장로님들이 이 체험을 해버려야 진짜 성경 전체가 뚫린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충격이 되느냐 하면 사업처에도 가보면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의 증거들이 계속 온다.

4.결론- 열매

▶결론이다.

(1)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것이 정상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지성인보고 물어봤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봤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그냥 싱긋 웃는다. 만약에 없으면 좋겠는데 계시면 어떡하는가? 당신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물어봤다.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없으면 천만 다행인데 있으면 어떡할래? 있으면 당신 가야되지 않느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의사인데 내가 심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 웃다가 가만히 듣고 있더라. 하나님이 내 생명과 당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또 신자 중에서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신자가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있다.

(3)중직자 가운데 두 종류의 중직자가 있다. 교회 와서 일만 실패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열매는 온다. 반드시 결과는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을 뜨고 어떤 때는 단기적으로 오는 응답도 있지만 장기전을 싸야 된다.

▶제가 북한을 가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아니더라. 보니까 일본을 제일 싫어한다. 나는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은 일본을 제일 싫어한다. 일본 얘기를 하니까 아예 이를 갈더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우리나라를 아주 괴롭혀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너무 강한 생각이어서 내가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에게 잡아먹힌 것이다. 이 눈을 우리 램턴트들이 못 뜨면 곤란하다.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잡아먹힌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

다. 그거 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고 있으면 곤란하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잡아먹힌 것이다. 지금도 능력 없으면 경제, 문화 다 잡아먹힌다. 그래서 똑바르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그때 가서 느낀 게 있다. 너무 오랜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그걸 느꼈다. 우리 남한, 북한을 사랑하지만 우리 민족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느낀 게 하나 있다. 지금 복음 가진 자를 북한에 많이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 있는 동안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복음의 힘만이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오래오래 장기전이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열매는 정확하게 오게 되어있다.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하시는 사역들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있고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되어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걸 그냥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중직자 시대를 여는 이유이다. 앞으로 중직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는 당연히 회복해야 된다. 이 일에 여러분은 최고의 모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기도하겠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살릴 모든 중직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data.darak.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